

## “수행하니 직장이 즐겁다”

배려·존중문화 조성... 참선등 생활화  
 주5일근무 실행 확산시킬 것 '큰 기대'

81%

### 참여불교 · 本사 직장직능불자 설문조사

직장생활에 있어서 수행활동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지장이 될까?

직장에서 수행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 10명 가운데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이들 중 6명은 매일 직장에서 틈틈이 수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격월간)〈참여불교〉와 본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직장·직능 불자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인의 직업과 종교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불교신행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

문에 응답자 81.0%(141명)가 '그렇다'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행활동이 구성원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0%(101명)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 않다'는 2.3%에 불과했다.

또 직장불자 대부분이 자기 수행법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7.7%(170명)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58.2%는 하루 평균 10분 이상 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행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30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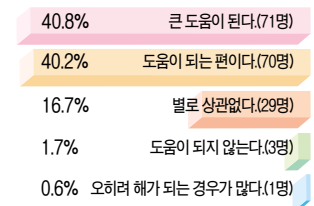
(25.3%), 10분 이상(24.7%), 1시간 이상(8.2%) 등의 순서로 파악됐으며, 10분미만은 38.3%였다. 직장생활이 바빠도, 수행만큼은 반드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수행법 유형으로는 경전읽기(간정)가 24.1%(42명)로 가장 많았고, 절하기(21.8%), 염불(19.0%), 참선(15.0%), 명상(12.5%), 위빠사나(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대감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86.8%(151명)가 '기존 수행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불과 10.9%(19명)였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사찰 또는 불교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높았다. 응답자의 53.5%(93명)가 주 또는 격주에 한 번 이상은 참가하겠다고 답했으며, 월1회는 31.6(55명)%, 월1회 미만은 14.9%(26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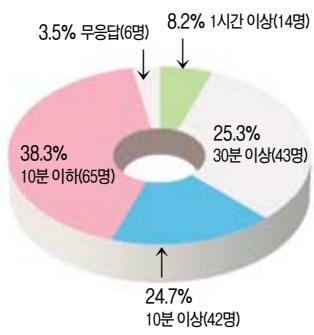
직장불자들의 달라진 수행의식도 확인됐다. '불교계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4.4%(95명)가 불교계에 손을 들어주겠다고 답해, 회사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44.2%(77명)보다 10.2%가 높았다. 이는 직장불자들도 불교신자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들어 직장·직능불자회가 재가불교신행에 거사불교의 바람을 일으킨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직장불자들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8%(125명)가 현재 지도법사 또는 재직사찰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 51.2%(89명)가 직장 특성에 맞는 수행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 불교신행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 하루에 얼마나 수행하는가(170명중)?



불교 인물에서 찾아보는 '리더십'과 '멘버십' 선호도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직장상사로서 가장 호감 가는 제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혜제일' 사리불을 꼽았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조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직장 동료로서 선호하는 인물로는 원효(17.5%), 만해(8.3%), 성철(6.6%) 스님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원효 스님의 무애행이 직장 내 원활한 대인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휴기로운 조사결과도 나왔다. '휴가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2%가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종립 초·중·고교 7곳 신설

진각종, 특수학교 포함... 3년내 개교 계획

진각종이 인재양성을 위해 종립 학교를 대폭 늘린다.

진각종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2007년까지 포함 지역에 중등학교(중·고교) 3곳, 위탁대 부속 초등학교 1곳, 위탁대 부속 유치원 1곳, 경주 지역에 특수학교와 대안학교 각각 1곳 등 7개 교육기관의 신설을 포함한 '회당학원을 새롭게 하는 비전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진각종 종립학교는 기존

의 위탁대, 심인중·고, 진선여중·고 등을 포함해 총 12개로 늘어났다.

비전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신설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를 경주·포항 지역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종단과 법인, 산하학교를 연계해 인재양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시킨다.

대구 심인중·고, 서울 진선여

중·고 등 4개 중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008년까지 학교 이전을 완료하고 교육 시설 첨단화, 교원자질 향상, 종조정신 구현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동 회당학원 전략경영팀장은 "2007년까지 법인운영을 관리중심으로 경영중심으로 전환하고 산하 학교 확충과 시설 첨단화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인과 종단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종합교육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그어려디는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후 불교계에서 일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에 들어온 김형남(왼쪽)·김봉석 씨. 사진=고영애 기자

사법연수원서 총무원으로 온 까닭은?

### “신뢰받는 불교위하여”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김봉석 변호사 '회제'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불교계 종무기관에 첫 진출한 불자 법조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제의 주인공은 사법연수원 33기 불교 모임 '다르마법우회' 회장 김형남(39·법명 법보), 총무 김봉석(31·법명 광법) 변호사.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연수원 수료와 함께 오는 2월 1일부터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책임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이 조계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연수원 2년차 때. 이들은 올 초 조계종 총무원에 직접 작성한 '법률팀 사업계획안'을 들고 찾아와 근무 의사를 밝혔고, 마침 상근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감한 총무원이 이들을 받아들였다.

3년으로 계속

### 수석 부회장에 명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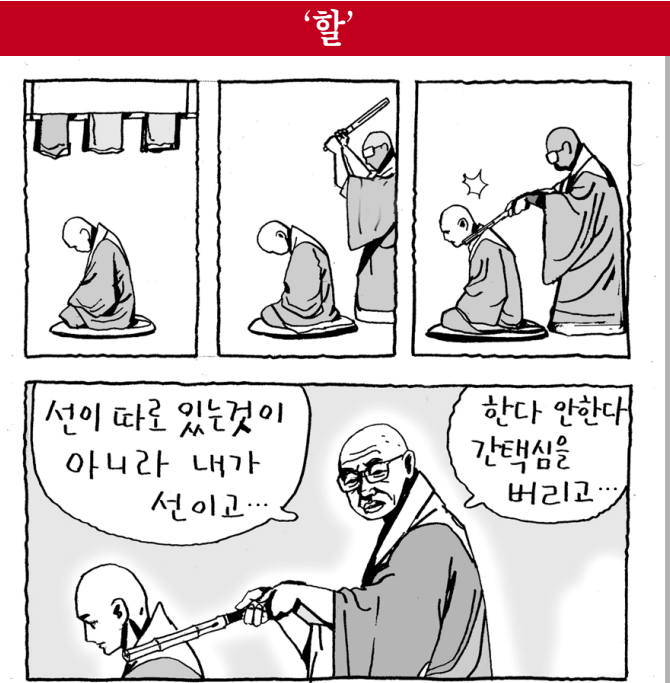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부회장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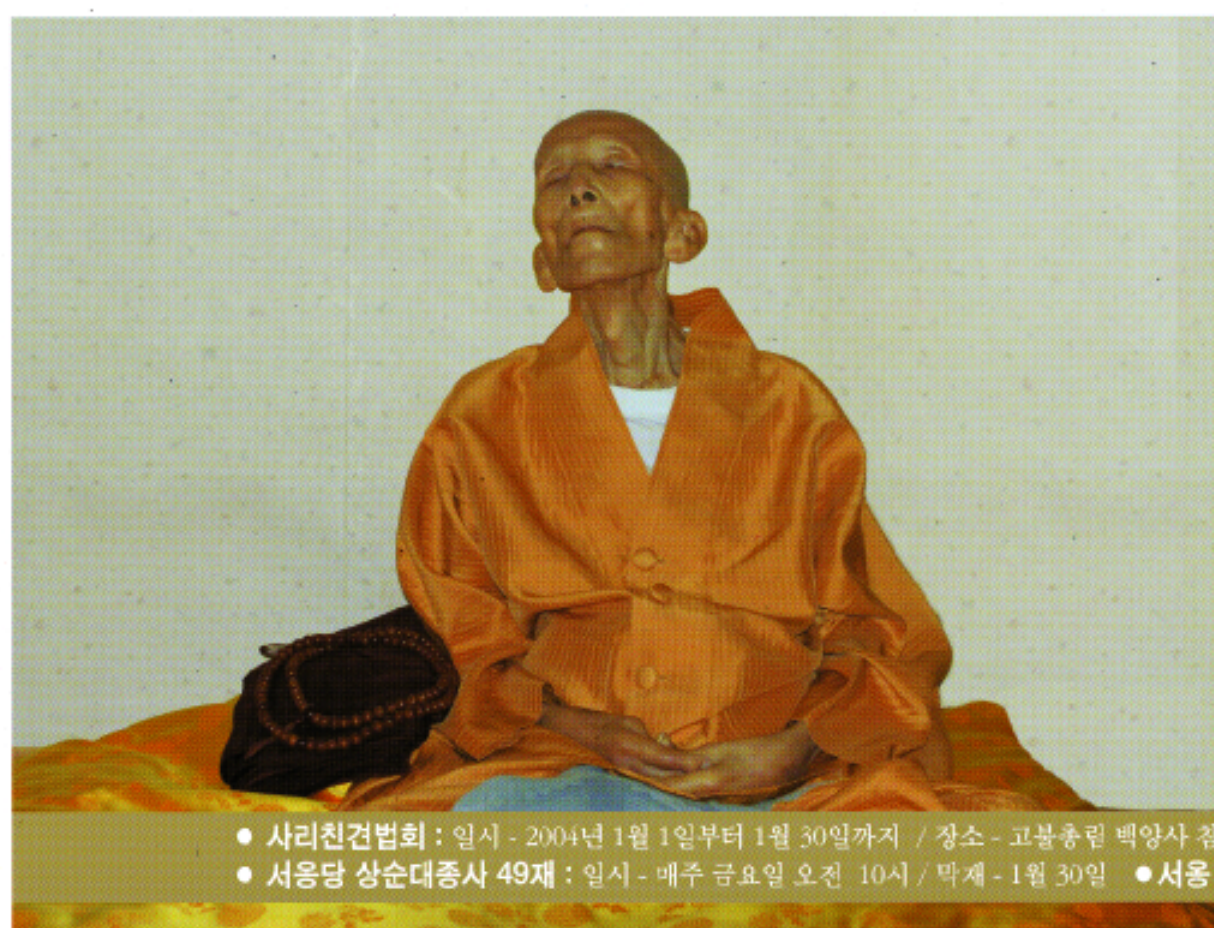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최근 서울 일원동 비구니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수석 부회장에 명우 스님(성심사 주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7명의 부회장을 새로 구성했다. 부회장은 명우 스님을 포함해 지원(보림사), 재은(경산포교당), 자민(연대선원), 수현(안흥사), 정덕(인파선원), 도문(석남사) 스님 등이다.

한상희 기자

설 연휴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 목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



## 서용대종사 사리 친견법회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참사람'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서용 큰스님은 열반에 드실 때에도 선정에 드신 채 입적하시는 '좌탈입망(坐脫立亡)'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좌탈입망이란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서 입적을 맞이하는 좌탈과 천 채로 열반에 드는 입망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중생의 죽음은 미망(迷茫)의 윤회 속에 헤매는 것이지만 깨달은 이의 죽음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번뇌의 적멸(寂滅)이며, 법신(法身)의 탄생입니다. 따라서 좌탈입망은 죽음을 삶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수행력을 겸비한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 역사에서도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스님을 비롯하여 보조국사 지눌스님, 현암스님, 만암스님 등 일세의 고승들이 좌탈입망하셨습다. 서용 큰스님의 좌탈입망은 큰스님의 수행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스승이신 만암스님에 이어 스승과 제자가 모두 좌탈입망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서용 큰스님의 크나큰 수행력을 기리는 서용대종사 사리 친견법회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사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수회동참하시어 큰스님의 덕화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 사리친견법회: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용대 상순대종사 49재: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제 - 1월 30일
- 서용 큰스님 사진전: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